바이브코딩 케이스 스터디 #4 · 제작기

사람 1명 + AI 직원, 17시간 만에 채널을 열다

코드 0줄로 유튜브 채널과 첫 영상을 만든 하루,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AI가 AI를 검토하는 구조'

출처: AI 사업일지 「실전기 #1」 영상 설명·챕터(2026.10)

결론부터

숫자 네 개로 보는 하루

17시간

채널 개설부터 첫 영상까지

새벽 4시 32분 시작, 밤 9시 37분 첫 업로드 준비

0줄

직접 짠 코드

본인 표현 그대로 “제가 직접 짠 코드는 0줄”

10 : 1

AI 직원 대 사람

영상 챕터 「직원 10명, 사람 1명」

100%

사람이 읽고 승인한 대본

모든 대본은 사람이 직접 읽고 통과시킨다

출처: AI 사업일지 「실전기 #1」 영상 설명·챕터 · 화면 속 시각은 작업 파일 생성 시각과 작업 지시 로그 기준이라고 밝힘

새벽 4시 32분

그날 만든 첫 영상, 우리가 이미 봤다

04:32 시작

주제와 방향 정하기

무엇을 만들지는 사람이 고른다

→

약 17시간

AI 팀이 제작

리서치, 대본, 팩트체크, 편집을 역할별로 나눠서

→

21:37 업로드 준비

실전기 1편

“이틀 만에 만든 게임, 월 4만 달러” 지도 게임 영상

비개발자의 바이브코딩 이야기를, 비개발자의 AI 팀이 만들었다

출처: AI 사업일지 「실전기 #1」 영상 설명(1편 링크: youtu.be/TWOAq2zspKY)

직원 10명, 사람 1명

AI에게 이름표를 붙여 일을 나눴다

사람 주제·방향 → AI 리서치 → AI 대본 초안 → 다른 AI 팩트체크 → 사람 읽고 승인 → AI 편집

사람은 양 끝에

무엇을 만들지 정하는 일과 내보내도 되는지 판단하는 일

검토는 별도의 AI가

대본을 쓴 AI가 아닌 다른 AI가 사실관계를 확인

출처: AI 사업일지 「실전기 #1」 영상 설명 · 10개 역할의 세부 명칭은 공개되지 않아, 설명란에 나온 단계만 표시

사용한 도구

영상 태그에 이름을 올린 도구들

도구	어떤 도구인가	우리 수업과의 연결
Claude	대화형 AI. 리서치·대본·팩트체크에 쓰였다고 설명	웹 UI로 써 본 그 AI
Claude Code	터미널에서 파일을 만들고 작업을 실행하는 AI	첫날 WSL에 설치한 claude
ElevenLabs	텍스트를 사람 목소리로 바꾸는 음성 합성 서비스	영상 내레이션에 쓰인 것으로 보임

‘AI 직원’이라는 말의 뜻

새 도구 10개가 아니라, 같은 AI에 서로 다른 역할과 지시서를 준 것에 가깝다

개발 도구로 콘텐츠를 만든다

Claude Code는 코딩 도구지만, 파일과 작업을 다루는 일이면 무엇이든 맡길 수 있다

출처: 「실전기 #1」 영상 설명·태그 · 각 도구의 정확한 역할 분담은 공개 자료에 없어, ElevenLabs의 용도와 아래 두 카드는 강의용 해석

AI가 AI를 잡았다

진짜 교훈은 속도가 아니었다

첫 번째 AI의 실수를 다른 AI 검수 단계가 잡도록 짠 구조

영상 설명에서 밝힌 핵심 교훈을 요약

왜 다른 AI인가

자기가 쓴 글은 자기 눈에 맞아 보인다. 사람도 AI도 같은 맥락 안에서는 같은 실수를 놓친다

무엇을 보게 하나

원본 출처와 대본의 숫자·주장을 한 줄씩 대조하게 한다. 만든 과정은 모르는 상태로

출처: 「실전기 #1」 영상 설명 · 오른쪽 두 카드는 강의용 설명

사람이 한 일

사람은 만들지 않고, 정하고 책임졌다

01

주제 고르기

무엇을 다룰지, 어떤 방향으로 말할지

02

역할 설계

AI마다 맡을 일을 나누고 작업 지시를 내리기

03

읽고 승인

모든 대본을 직접 읽고, 내보낼지 판단하기

AI 시대의 1인 사업자는 작업자가 아니라 편집장이다

출처: 「실전기 #1」 영상 설명(주제·방향 선택, 대본 승인, 작업 지시 로그) · 04:50 챕터 「사람이 한 일」

팩트체커가 뒤집은 숫자

100만 달러, 그 숫자는 무엇이었나

$1M

영상은 팩트체커 AI가 100만 달러 숫자를 바로잡은 실제 사례를 보여 준다고 밝힌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

2편 복근 앱 영상 설명에 “100만 달러는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며 실제 거래가가 아니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장면의 교훈

숫자 자체는 맞아도 ‘무슨 숫자인지’가 틀리면 틀린 정보다. 호가와 거래가, 매출과 이익처럼

출처: 「실전기 #1」 영상 설명, 2편 복근 앱 영상 설명 · 두 영상의 100만 달러가 같은 사례인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우리도 겪은 일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며 잡아낸 숫자들

사례	영상 제목·설명의 표현	원본 출처와 대조한 결과
복근 앱	월 5만 달러	9월 한 달 매출. MRR은 약 2만 달러, 최근 30일은 9월보다 적음
헬스 코치 앱	금융권 100번 탈락	인터뷰에서 확인되는 건 금융 인턴 두 번과 일이 맞지 않았다는 말
헬스 코치 앱	5개월 0원	본인은 첫 유료 고객이 약 4개월 차에 나왔다고 말함
헬스 코치 앱	28일 1만 4천 달러	수수료·광고비 차감 전 총액. 하루 광고비 약 250달러

틀렸다기보다 눈길을 끄는 쪽으로 다듬어진 숫자들. 출처를 대조하는 단계가 없으면 그대로 퍼진다

출처: 앞선 세 덱의 대조 결과(TrustMRR, Starter Story 인터뷰) · 이 덱들도 AI로 조사·작성했고, 원본과 대조하는 단계를 거쳤다

우리가 베낄 수 있는 것

나만의 AI 팀을 만드는 공식 4가지

01 역할을 쪼갠다
한 AI에 다 시키지 말고 리서치, 작성, 검토를 나눈다

02 검토자는 따로
만든 AI가 아닌 다른 AI가 원본 출처와 대조한다

03 승인은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직접 읽는다

04 기록을 남긴다
작업 지시 로그와 파일 시각이 있어야 숫자를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멀티에이전트 워크플로우다

출처: 「실전기 #1」 영상 설명의 교훈을 강의용으로 정리